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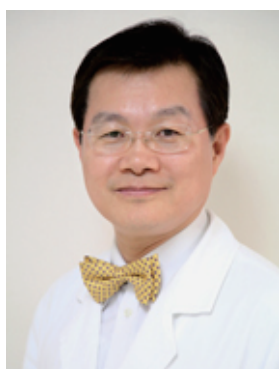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우리가 받는 가장 큰 격려는 바로 여러분들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입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이진호 교수,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취임



소화기내과 이진호 교수가 3월 1일자로 제 4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제15대 의료원장에 취임했다.

이진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학전임강사,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교수를 거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내과과장, 소화기병센터장, 3대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병원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등의 학회 활동을 포함하여 현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장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02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 제1회 동국 줄기세포/재생의학 심포지엄 개최

동국대학교 의료원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제 1회 동국 줄기세포/재생의학 심포지엄을 2월 22일 동국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Singapore 국립대학의 Biomedical Engineering Department (의용공학과)의 주임교수인 James Goh 교수를 비롯한 4명의 해외석학이 초청되었으며 세포응용사업단장을 역임한 연세대학교의 김동욱 교수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줄기세포/재생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14명의 톱클래스 연구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본 심포지엄을 주관한 정형외과 임균일 교수는 “앞으로도 줄기세포/재생의학 국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여 우리대학의 지명도를 높이고 학문 수준을 제고하여 동국대학교를 국내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의 선도기관으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03 특수, 한방간호팀 Know-how 공유의 장 실시

특수, 한방간호팀은 2월 21일 대강당에서 ‘즐거운 일터, 행복한 간호사’ 라는 주제로 Know-how 공유의 장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채석래 병원장, 김동일 한방 병원장, 김민호 행정처장, 곽윤희 간호부장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긍정적 탐문을 통한 조직 문화 만들기’, ‘환자안전 지킴이’, ‘외래고객 응대 매뉴얼’, ‘행복한 소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유의 장에 참여한 한 간호사는 “간호사 모두가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소통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더욱 더 행복한 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essay

102병동, 슬프고도 아름다운 카드 이야기

2013년 어느날 102병동으로 한 아픔의 카드 꾸러미가 도착했다. 거기에는 간호사 한명, 한명에게 정성스런 손 글씨로 감사인사와 새해덕담이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다. 이 카드를 보낸 주인공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시행하고 한달 전 퇴원한 환자와 그녀의 남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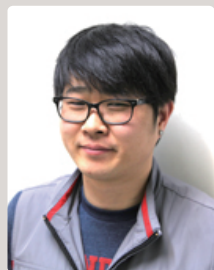
입원당시 환자는 뼈 전이로 인한 통증으로 거동이 힘들다 보니 욕창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수혈과 방사선치료 등 간호사들이 그 환자에게만 매달려 있어야 하는 날들이 많았다. 하지만 고맙고 수고했다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보면서 환자의 쾌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하루하루였다.

시간이 흘러 그 환자가 다시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환자에게 찾아가 카드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환자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차마 전하지 못한 고마움을 환자 영정 앞에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환하게 웃는 환자의 영정 앞에서 앞으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장례식장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또 시간이 흐른 지금, 환자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항상 친절한 간호사가 되겠다는 그때의 다짐이 흐려질 때마다 내 사물함에 붙여 놓은 환자의 카드를 보며 마음가짐을 재정비한다.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라고...

원내 전화는 누가 개통해 주는 걸까? 그리고 우리병원에 전화기는 총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톡톡 인터뷰는 본관 4층 통신실에 근무하는 시설팀 최도건을 만나보았습니다.

톡톡 짧은 인터뷰



시설팀 최도건

- **본인소개?** 2005년 2월 1일 입사, 82년생 개띠, 육군 통신병으로 만기전역 후 입사, 현재 애인과 268일째 열애 중에 있음.
- **우리병원에 설치된 전화기 수는?** 현재 1,950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니 전화기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 **이런 전화는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원내 방송요청 전화(방재실이나 콜센터로 하세요~)
- **취미생활?** 축구를 엄청 사랑하며, 현재 병원 축구동호회 ‘동국 FC’ 에이스임. 사실 확인결과 에이스 맞음.
- **한 쪽 귀에 귀걸이를 했는데 보유하고 있는 귀걸이는 몇 개?**
피어싱을 하고 있으며 8개 정도 가지고 있음.
- **교직원들한테 부탁이 있다면?** 제발 전화기 좀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알 리 미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취임식 일 시 : 3월 6일 17시 | 장 소 : 5층 대강당

